

부활의 소망

핵심 구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니, 이는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20

선정된 성경 구절:

고린도전서 15:12-28

첫 열매가 있다면, 반드시 “그 뒤의 열매”도 있어야 합니다. 이 논리는 명백합니다. 사도 바울의 부활에 대한 논증은 강력하며, 우리 기독교 신앙의 확고한 신학적 기초를 이룹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는 비유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분은 문자 그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친히 증언하셨습니다. “나는 살아 계신 자요, 죽었던 자요, 보라, 내가 영원토록 살아 있노라.” (요한계시록 1:18). 그분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우리의 소망은 덧없는 것이 아니라 실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가 아담 안에서 모두 죽는 것이 확실하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 또한 확실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22

고린도 교회에 전한 바울의 메시지는 이 주제에 대한 그의 이전 가르침과 일관되었습니다. 아테네의 아레오파고스에서 그는 성경에 기록된 가장 기억에 남는 설교 중 하나를 전했습니다. 부활에 관해 바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을 통해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날을 정하셨으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이를 확신시켜 주셨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듣자, 어떤 이들은 비웃었고, 어떤 이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듣겠다”고 말했다.” (사도행전 17:31,32).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누릴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준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 넘겨지시고, 우리의 의를 위해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다.” (로마서 4:24,25).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근거입니다. 이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우리의 소망의 기초입니다.

흥미롭게도 고린도 교회의 어떤 형제들은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파된다면, 어찌하여 너희 중에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느냐?” (고린도전서 15:12).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부활 교리를 부인할 수 있었을까? 그들이 무지했던 것일까?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믿는다. 고린도 교회의 부활 부인자들은 기독교로 개종한 고학력의 사두개인들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들의 종파는 부활이 없다는 특이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박해에 맞서 자신을 변호할 때 그 사실을 유리하게 활용했다. “바울이 한 무리는 사두개인이고 다른 무리는 바리새인임을 알아차리고 공의회에서 소리쳐 말하였다.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이요 바리새인이라. 죽은 자의 소망과 부활에 관하여 내가 심판을 받고 있도다! 그가 이 말을 하자,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이에 논쟁이 일어나 회중이 갈라졌다. 사두개파는 부활도 없고 천사나 영도 없다고 말하지만, 바리새파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인정하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23:6-8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 나가고 예루살렘에서 제자의 수가 크게 늘어났으며,

제사장들 중 많은 이 [대다수가 사두개인들임—사도행전 5:17 참조]가 믿음에 순종하였다.” (사도행전 6:7). 사두개인들의 오해를 바로잡는 데에는 바울의 강력한 논증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과 부활의 소망에 대한 더 분명한 통찰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